

해남군 로컬푸드 매장 매출 100억 달성

2021년 개장후 연 평균 30억원 569농가·793개 품목으로 확대 지역 중소농가 소득향상 큰 도움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전국 모범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해남군은 2021년 10월 해남읍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연간 평균매출 30억원 이상을 올리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매장 규모는 현재 589농가, 79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직매장에는 중소농 위주의 출하 농가에서 연간 기획 생산을 통해 농산물을 비롯한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품, 공예품 등 다양한 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인근에 배후도시가 없는 농어촌지역임에도 매출이 꾸준한 이유는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비자 안전 먹거리 공급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장은 매일 오전 당일 생산된 신선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다. 출하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농가소득으로 직접 지급하면서 지역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올해 제2차 지역먹거리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광역형 물류센터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지역농산물을 수집·보관·가공·배송하는 허브를 구축, 대도시로 판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촌지역에서도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로 전국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으로 농어촌 수도, 해남의 기반을 더욱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HD현대, 목포 경애원 '드림 플레이스' 개소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삼호화 국제야동관리 비정부가구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아동을 위한 '드림 플레이스' 조성사업에 나섰다.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지난 15일 목포 경애원에서 김재을 사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의원,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 경애원 박재순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Future Builder의 꿈이 시작되는 곳, Dream Place'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HD현대1%나눔재단은 목포 경애원에 ▲놀이와 휴식을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 ▲건물과 건물 사이

2층 중정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게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HD현대그룹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모아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진행됐다. '드림 플레이스' 사업은 HD현대1%나눔재단이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8개월간 전국 아동보호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들여 ▲노후환경 개·보수 ▲유휴공간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향후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

신안군 압해 송공~증도 병풍도 다섯 번째 공영여객선 취항

민간 항로 인수 천원 여객선 운항

신안군이 지난 12일 압해 송공항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김길동 신안군수협장 등 내·외빈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섯 번째 공영여객선 취항식을 가졌다. 압해 송공과 증도 병풍도를 오가는 이번 항로는 전국 최초로 공영여객선, 천원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이 2016년 증도와 자은을 잇는 공영여객선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 공영여객선 운항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난 12일 압해 송공항에서 주민과 함께 열린 공영여객선 취항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민간 선사에서 운영하던 항로를 인수해 공영여객선 항로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 민간 선사에서 운영하면서 운항시간의 지연, 승선객들에 대한 친절도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편민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선박은 슬로시티 5호로 167톤급 차도선이며, 정원은 184명으로 민간 선사에서 운영했던 승선 정원보다 39명이 증원됐다. 주요 운항구간은 압해 송공과 증도 병풍도를 기점으로 당사도, 소약도, 매화도, 기점도 등을 경유한다. 여객운임은 도서민 천원, 일반민은 이천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완화했다. 차량은 도서민 소유로 등록된 승용차와 1톤 미만 차량은 이천원에 이용 가능해 민간 선사에서 이용했던 금액의 5분의 1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군은 이번 공영여객선 취항으로 기대감이 크다. 기항지가 병풍도로 대표적 관광지 12사도와 맨드라미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이번 항로 인수로 서비스 질 개선, 그간 제기되어 왔던 불편민원에 대한 해소,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 향상 등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갈 것이라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번 취항식 여객선을 이용하는 한 주민은 "무엇보다도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 같고, 안정적 운항시간으로 행여 놓치거나 아님 한몫이 기다리는 불편도 해소될 것 같고, 더구나 공영여객선이니만큼 더 안전하다는 마음이 든다"라고 말하며 주민

모두 이번 취항식을 반긴다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미 신안군은 버스 완전공영제가 실시와 더불어 해상교통도 지속적으로 공영제 항로를 늘려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상교통도 완전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병풍도를 지역주민 차량외에는 입도를 금지해 '관광객 차량없는 섬'으로 만들 방침으로 이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항시간과 육상교통 운항시간대를 연계해 자신의 차량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105곳으로 확대

26일까지 접수 후 선정

영광군은 올해 2억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당초 78개 마을에서 105개 마을로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와 여성 농업인

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마을은 조리·급식 장소를 갖추고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이다.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농번기 이전에 지원 대상마을 105곳을 선정

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조리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영농철 25일간 공동급식 추진을 위해 한 곳당 242만원을 지원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농촌 마을의 공동체를 강화해 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올해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무안향토갯벌축제 5월 10~25일 16일간 개최

연꽃축제는 6월 26~29일 4일간

무안군은 무안향토갯벌축제를 5월 10~25일 16일간, 무안연꽃축제를 6월 26~29일 4일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1회째 맞는 무안향토갯벌축제는 평일 무안생태갯벌사업소에서 상시 프로그램으로, 주말에 행사를 집중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말 테마형 축제로 변화를 줬다.

제28회 무안연꽃축제는 6월 26~29일 조성중인 인취사 백연이 개화해서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축제를 개최한다. 박문재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 기간은 폭염, 장마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균형 행사 일정, 농번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대비 한 달 정도 앞당겼다"며 "어느 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체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세얼굴

"천일염의 세계적 브랜드화에 힘 쓰겠다"

이중주 대한염업조합 조합장

"대한염업조합을 위해 더 창의적이고, 더욱 혁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 바쳐 천일염 세계적인 브랜드화 해 나사겠습니다." 최근 대한염업조합 제25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중주(64·전 신안군의회 의원) 씨는 "대한염업조합이 강력한 구심점이 돼 조합원의 부당한 불이익을 좌시하지 않고, 가격안정과 품질향상은 물론 조합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또 "창의적인 비전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가면서 관계 부처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에도 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공약사항인 새 청사와 대형 저장 시설 건립을 추진 하고 새로운 가격 포장제 실시로 안정된 소금 가격 유지와 수입업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우수 천일염 명인 육성과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주 당선인은 신안 비금면 출신으로 신안군 기초의원 재임 기간에도 염업인의 어려운 사황들을 청취하고 천일염 생산과 유통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 당선인은 4월 1일 취임과 동시에 4년간 조합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